

# 보 도 자 료

배포 날짜

2026. 6. 29. (월)

총 3페이지

## 2026년 6월 29일 광주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릴레이 성명발표 10

|                   |                                                                                                                                                                              |                   |     |              |
|-------------------|------------------------------------------------------------------------------------------------------------------------------------------------------------------------------|-------------------|-----|--------------|
| 구 분               | 보도요청                                                                                                                                                                         |                   |     |              |
| 수 신               |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                   |     |              |
| 발 신               |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                   |     |              |
| 담 당               |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br>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숨<br><a href="http://www.teen-up.com">www.teen-up.com</a> / 02) 6348-1318<br>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                   |     |              |
| 릴레이<br>성명발표<br>담당 | 센터명                                                                                                                                                                          | 광주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     | 총 3장         |
|                   | 담당자                                                                                                                                                                          | 남궁미 팀장            | 연락처 | 062-227-8297 |

## 성 명 서

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

피해자 보호 없는 반쪽짜리 대책을 규탄한다!

- 정부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법적 고유 ‘시설’로 전환하고 전문인력을 즉각 확충하라 -

2020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소에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센터(이하 센터)’가 설치되어, 피해 접수부터 법률, 의료, 심리, 학업, 직업훈련 지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아동·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한 방대한 통합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센터”라는 이름이 무색하게도, 현재의 운영 구조는 참담한 수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3년 주기의 공모 ‘사업’ 형태로 센터를 운영하며, 고작 3명의 인력만을 배치해 놓고 있다.

센터가 지원한 피해아동·청소년은 2021년 727명(12,520건)에서 2025년 1,226명(27,419건)으로 급증했다. 법정대리인 상담과 관계기관 연계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2025년 기준, 17개소 51명의 상담원이 1인당 약 24명의 피해아동·청소년을 맡아 537건에 달하는 지원을 감당하고 있다. 피해아동·청소년들이 겪는 불법 촬영, 성착취물 유포 협박, 중복 피해(학교/가정폭력), 성병 및 임신 등 복합적이고 치명적인 피해를 단 1명의 상담원이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장의 상담원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3년마다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 ‘계약직’이라는 고용 불안과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인해 극심한 소진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아동·청소년을 살려낼 전문가들이 현장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을 출범하며, 해외에 숨은 가해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피해자가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곁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며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묻고 싶다. 3년짜리 단기 사업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3명의 인력으로, 폭증하는 피해자들의 일상을 도대체 어떻게 회복시키겠다는 것인가?

디지털 강국이라는 이면에서, 성착취 피해 내용과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피해자를 온전히 구제할 수 없다. 피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에 광주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디지털 성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근절하고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개인정보 보호라는 미명 아래 가해자가 숨을 공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성착취가 가능한 디지털 환경을 즉각 개선하고, 범죄자를 엄벌하여 성착취 범죄의 뿌리를 뽑아라.

하나. 전문성 있는 상담 인력을 즉각 충원하라!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만큼 피해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통합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피해자를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하나. 불안정한 ‘위탁 사업’을 폐지하고, 법적 고유 ‘시설’로 즉각 전환하라!

지자체의 3년 단위 공모 사업 방식은 단기적이고 땀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정부는 센터를 정식 ‘시설’로 전환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

성착취 피해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지금 당장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6. 6. 29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